

보험업계, CSM 확대 총력전... '지속 가능성' 승부 가른다

(보험계약마진)

금융당국, 핵심 계리가정 점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를 적용

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과 보장성 상품을 앞세워 보험계약마진(CSM)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회계제도(IFRS17) 체제에서 CSM은 보험사가 보유 계약을 통해 앞으로 벌어들이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뜻하는 핵심 지표다. 금융당국이 손해를·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점검에 나서면서 올해 보험업계의 승부는 CSM의 '양'보다 '질'에서 갈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생보사 실적 보면 건강보험과 보장성 상품을 앞세워 신계약 CSM을 늘리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손익의 기초체력을 방어하는 전략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신계약 CSM은 3조595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17%포인트(p) 높아졌다. 건강보험이 더는 보조 상품이 아니라 CSM 확대의 핵심 전장으로 올라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업계 CSM 이미지.

삼성생명 작년 신계약 CSM 3조 건강보험 비중 75%, 17%p 상승
KB라이프 작년 말 CSM 3.3조 신계약 5047억, 0.7%p 상승 그쳐
한화생명 3년째 CSM 2조 넘겨 보장성보험 CSM 비중 96% 달해

섰다는 의미다. 대형 생보사가 건강보험 중심으로 미래의 재고를 쌓는 전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삼성생명은 "고수익 건강상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신계약 CSM 3조595억원을 달성했다"며 "순수건강 중심 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건강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KB라이프도 같은 흐름에 올라타 있다. KB라이프의 지난해 말 CSM은 3조2638억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KB라이프는 건강보험 시장 진출과 CSM이 높은 건강보험 상품 판매를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반면 신계약 CSM은 5047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늘어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 중심 전략이 CSM 잔액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신규 유입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된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한화생명 역시 건강보험과 보장성보험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신계약 CSM은 2조663억원으로 3년 연속 2조원을 넘겼고, 보장성보험 CSM 비중은 96%에 달했다. 건강보험 CSM은 1조249억원, 건강보험 수익성 비율은 15.9배로 개선됐다.

다만 신계약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유 CSM은 할인율 강화와 교육세 인상, 계리가정 조정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 신계약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못지않게, 그 숫자가 회계·계리 변수 변화에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중요해진 셈이다.

문제는 금융당국도 바로 이 지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한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담보에는 보다 보수적인 손해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1일 보험부문 업무설명회에서 핵심 계리가정인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마련,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계리감리 강화 등을 예고했다. 보험사가 CSM을 쌓는 방식 자체보다, 그 숫자의 출발점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하며 보수적인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누가 더 많은 건강보험을 팔아 신계약 CSM을 쌓느냐가 전면에 섰다면, 앞으로는 그 CSM이 얼마나 검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숫자인지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판매 드라이브가 이어지더라도 손해율·사업비 가정을 공격적으로 잡는 방식의 외형 경쟁은 점차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유계약 CSM은 시점마다 가정을 다시 반영해 계산하는 구조여서 단순 증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결국 CSM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보다 그 숫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은행·신보, 소상공인 지원

작년 국내은행 순이익 24.1조 '역대최대'

금감원, 2025 국내은행 영업실적
시중·특수은행 중심 매출성장 지속
일반은행 15.2조, 특수 7.8조 기록

지난해 국내은행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늘어난 24조1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규모를 경신했다. 시중은행·특수은행 중심의 매출 성장이 지속됐으며, 지방은행 매출은 제자리걸음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국내은행의 총 당기순이익은 총 2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16조2000억원을, 특수은행은 전년 대비 4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일반은행 가운데 유형별로는 시중은행이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6조2000억원을 기록해 가장 가파른 실적 성장을 기록했고, 인터넷은행이 직전 연도보다 1000억원 늘어난 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행은 전년보다 300억원 줄어든 1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소폭 역성장했다.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9%로 집계돼 전년도(0.58%)보다 소폭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93%로 0.17%포인트(p) 성장했다.

매출 항목별로는 이자이익이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60조4000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1.57%에서 1.51%로 0.06%p 하락했지만, 이자수

익자산 규모가 3290조2000억원에서 3442조원까지 늘어나며 총 이자이익은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규모는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조6000억원을 기록해 가파르게 늘었다.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자율·통화위험회피목적 거래 관련 파생상품 이익이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늘어나며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유가증권관련이익은 전년 대비 57.3% 감소했다. 예금보험료·공공기관대출료 등비용도 늘었다.

판매비 및 관리비는 전년보다 2조원 증가한 2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인건비가 1조4000억원 늘어나며 비용 상승의 주된 이유가 됐고, 임차료·연구비 등 물건비도 6000억원 늘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하나은행, 2000억 규모 안심통장 대출

서울 소재 개인사업자 대상

하나은행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를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3호 대출'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업력이 1년 초과한 개인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에 해당하는 손님이다.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갑작스런 자금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한도약정수수료 및 약

정한도미사용수수료가 전액 면제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서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5부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 신청 손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3월 19일(1,6), 20일(2,7), 23일(3,8), 24일(4,9), 25일(5,0)에 해당하는 손님이 대상이며, 3월 26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손님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 및 비상금 자금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더 많은 개인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륜차 번호판 더 잘보이게 바뀐다

국토부, 오늘부터 전국 단일번호 체계

이륜차 번호판이 더 커지고 또렷해진다. 전국 단일 번호 체계가 도입되면서 불법 운행 단속과 교통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관리 효율을 높이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새로운 번호판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어난 가운데 기존 번호판은 무인 카메라 단속과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표시를 없애고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한 점이다. 기존에는 '서울', '경기' 등 지역



이륜차 전국 번호판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번호판 제작소에서 관계자가 새롭게 도입된 이륜차 번호판을 시연하고 있다. /뉴스

명이 표기됐지만 앞으로는 사라진다. 번호판 디자인도 바뀐다. 기존보다 세로 길이가 늘어나고, 글씨 색상은 형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KB국민은행 장병적금 금리혜택 강화

KB국민은행은 'KB장병내일준비적금'의 주요 우대금리 항목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최고 우대금리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리 혜택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KB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은행별 월 3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14개 은행을 합산한 최대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우대금리 항목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보유 ▲KB국민카드(신용/체크/BC) 결제대금 출금 실적 보유 등을 상향 조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 최대 1000만원... 5년 연장 가능

우리은행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3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안심통장 3호 지원 대상은 ▲개업 후 1년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원 이상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신청은 1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증 승인 후 우리은행 모바일 앱 '우리WON 기업뱅크'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후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오는 26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박준석 우리은행 소호사업부 부장은 "서울형 안심통장 3호 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